

포항시, 세계 최초 CVD그래핀 필름 양산체계 구축

(화학기상증착)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식
시생산 거쳐 내년부터 본격 양산
산학연협의체 출범식도 진행

포항시는 지난 18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그래핀스퀘어포항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장, 이남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김성근 포스텍 총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캘리스코, 포스코홀딩스 등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첨단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전도성, 유연성, 투명성 등 우수한 물성을 갖춘 차세대 핵심소재다. 정부는 지난 8월 그래핀을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정하며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바이오 신약, AI 슈퍼컴퓨터, 항공 우주 등 활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18일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포항시

황이다.

이러한 산업 흐름 속에서 그래핀스퀘어는 그래핀 상용화를 실현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보고된 화학기상증착(CVD) 기반 대면적 그래핀 합성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CVD그래핀 필름 양산체계를 구축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은 타임지, CES, German Design Award 등 해외 유력 매체와 전시회에서 다수 수상하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포항공장 준공으로 그래핀스퀘어는 시험, 분석 및 시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CVD그래핀 필름의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향후 프리미엄 조리가전, 자동차용 발열유리, 뷰티·헬스케어 기기, 웨어러블, 항공우주·조선 부품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공급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식에서는 '포항 그래핀밸리 구축을 위한 산학연협의체'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협의체는 그래핀스퀘어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기

관으로 구성되며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기업 유치,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포항시는 그래핀 산업의 잠재력을 일찍이 파악하고 성장 기반 확장에 속도를 내 왔다.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 그래핀밸리 조성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그래핀 혁신 생태계 구축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 역시 포항의 선제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그래핀 분야 첫 현장 방문지로 포항을 선택한 것도 포항이 국내 그래핀 산업의 실질적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준공은 그래핀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그래핀스퀘어 포항공장이 포항을 세계 그래핀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s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산청군

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 완료

산청군은 '동의보감 물길따라, 약초마을 향기따라-동의보감 시오리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33억원이 투입됐다.

경호강변 일원에는 산청읍과 동의보감촌을 잇는 1.26km 구간에 산책로 및 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전광대와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산청읍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열려

부산시는 19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자원봉사센터와 16개 구·군자원봉사센터, 벡스코 등이 공동 주관하는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김치나눔 행사로, 올해 15회째인 이 행사를 위해 40개 기업·기관에서 2억원 상당을 후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후원 기업 및 기관 임직원,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1만여 포기(31t) 김치를 담구었으며, 완성된 김치는 부산 전역의 홀로 어르신 등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이웃 6200여 가구에 5kg씩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부산항만공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세계 1위

부산항만공사(BPA)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로 국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영예를 안았다.

BPA는 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관한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BPA는 전 세계 5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 중 100점 만점에 99점을 기록하며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플래티넘 등급을 받았으며, 6개 평가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해 종합 세계 1위에 올랐다. /부산=이도식 기자

해남군

해남문예어울림센터 조성

해남군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허브가 될 해남문예어울림센터가 조성된다.

해남군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전국적인 창작 허브를 구축하고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해남읍 연동리 일원에 40억원을 투입, 해남문예어울림센터를 건립한다.

해남문예어울림센터는 건축규모 625.85㎡, 2층 신한옥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 전용공간과 창작활동 시 일상생활과 숙박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오는 2027년 말 개통 예정

토목공사 공정률 92~99% 기록
내달 22일까지 상부도로 전면 개방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오는 2027년 말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를 2026년 말까지 모두 마치고 1년간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말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서구와 남구지역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됐으며 토목공사 공정률은 1~6공구 92~99%를 기록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상부도로 통행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부도로 개방률은 지난 10일 기준 1공구(차량기지~운천저수지) 93%

로 2공구(월드컵경기장) 34%, 3공구(무등시장 인근) 60%, 4공구(남광주 고가도로 앞) 59%, 5공구(산수오거리 인근) 71%, 6공구(광주역 뒷편) 78%이다.

광주시는 지하도 공사와 병행되는 백운광장과 도시철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진출입로가 설치되는 정류장 구간을 제외하고 다음달 22일까지 상부도로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북구 중흥동~서구 유촌동까지 20km(18개 역사)구간으로 공사는 1단계(6공구)·2단계(8공)로 나뉘어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됐다. 1단계 구간 토목공사가 공정률 90%를 넘어섬에 따라 2단계 공사도 7·10공구를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내달 2일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

호남 지역 근대 선교의 발자취를 담은 군산 선교역사관이 4년간의 건립 과정을 마치고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구암동 현지에서 주요 관계자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군산 선교역사관(구암동 334)은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62억 원(선교기념탑 포함)을 들여 조성됐으며, 지역 근대 교육의 상징인 멜볼디여학교의 외형을 본떠 건축돼 그 의미를 더했다.

군산은 1895년 윌리엄 전킨(William M. Junkin, 전위령) 선교사가 발을 디딘 선교지이다. 당시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 외에도 영명학교, 멜볼디여학교를 세워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



군산 선교역사관.

산 예수병원을 통한 의료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등 선교활동을 펼치며 근대화에 기여했다.

역사관은 지상 3층(연면적 998㎡)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과 2층에는 군산 지역에서 전개된 근대 선교활동 자료, 문헌, 유물 등이 전시된다.

/군산(전북)=정훈 기자 tajji1819@

김해시, 노후 공업지역 첨단산업 중심 재편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계획수립

김해시가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규모 정비 작업에 나선다.

김해시는 2035년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내년부터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에 위한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은 도시 공업지역의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노후 공업지역을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 등 유형별 관리 방안에 따라 기반시설 개량, 업종

재배치, 환경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비 대상은 산업단지 등 계획적 개발지를 제외한 용도지역 상 공업지역이다. 관내 공업지역 총 10개소(9.0㎢) 중 노후도와 미개발지 현황, 접근성, 업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과급 효과가 큰 구역부터 시범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 기초 조사와 유형별 정비 방안 마련에 이어 행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서 '韓 지방시대 엑스포' 열려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 참여

대한민국 지역 균형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균형성장비전과 실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막 첫날인 19일 오후 2시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알렸다. 또한 학술대회(콘퍼런스) 및 정책·학술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미래 지역 정책을 논의한다.

전시회는 366개 공간(부스) 규모로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성과와 주요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시는 개최지관(울산광역시관)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를 주제로, 산업수도를 넘어 AI수도로 나아가는 비전을 선보인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